

정부, 추석연휴 기간재난 대비 '24시간' 근무체계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재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며, 전국 소방·경찰·해경 관서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백화점, 목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551개에 대한 화재 점검과 전국 철도역사 12개·공항 15개·여객선 162척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메르스 발생에 따른 오염지역 국외 여행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24시간 비상운영 중인 국립검역소와 긴급상황센터는 연휴기간에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만도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위해 비상 방역근무 국립검역소·긴급상황센터 운영 교통편의 대중교통 증편 운행도

태풍 영향으로 지난 7~8월 가격이 급등했던 농산물은 최근 기상호조와 정부의 공급량 확대에 이달부터 가격 안정세에 돌입했다.

구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가격안정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26일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연휴기간에 3664만명이 이동하며 귀성길은 오는 23일 오전 귀경길은 24일 오후에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정부는 고속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증편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고속버스는 1221회, 열차는 39회, 항공기는 7편, 연안여객선은 210회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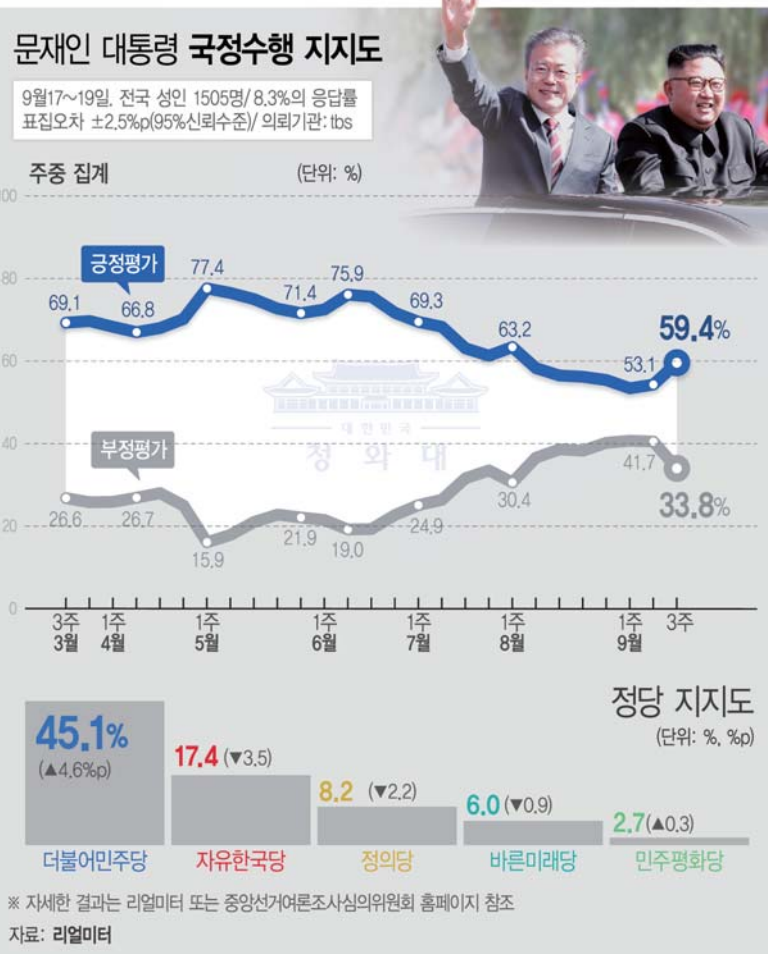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숙박보호를 위한 임금체불대책도 이와 더불어 추진 중이다.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6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용자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생계비 대부과 사업주 용자 금리를 1%p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뉴스스

문대통령 지지율, 59.4% 평양회담 성과에 급상승

부정평가 33.8%...대부분 지역·연령·이념성향서 상승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힘입어 지난주 대비 6.3%p 오른 59.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9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전체의 59.4%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지난 주간집계 대비 7.9%p 떨어진 33.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p 증가한 6.8%였다.

세부적으로는 큰 폭으로 상승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이하 보수층과 중도층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14일 일간집계에서 52.2%를 기록한 후,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이례적 환대가 보도됐던 지난 18일 57.7%로 대폭 상승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정상회담 백두산 등정 계획이 알려진 지난 19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61.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6일 일간집계(63.2%) 이후 처음으로 60% 선을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러 북한의 비핵화 이전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6%로,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해 비핵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한다는 응답(29.1%)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밝혔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두달 만에 45%선을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6%p 올라 45.1%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0% 초반을 기록한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17.4%로 집계됐다. 이

이 정외당(8.2%), 바른미래당(6.0%), 민주평화당(2.7%) 순이었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162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1505명이 답해 8.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폐지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공식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향후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게 된 문건을 다수 작성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운전하길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정)사법행정청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되면 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야당, 진선미 '위법 주식 보유' 집중 추궁

야당은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관련 주식 위법보유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 심사를 받은 건

하문(실수로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기간을 놓쳤다고 하면)이 해가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수라고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고 (주식을 통한) 이득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페미니즘과 동성애에 대한 진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진 후보자는 최근 페미니즘의 확산에

인한 '남녀 성(性) 대립 논란'에

진선미 "심사 시기 놓친 것, 고의 아냐"

野 "어떻게 실수냐...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성애, 성소수자라서 차별받았 안돼"

이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회신처 심사위원 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예결위 위원이 된 뒤 7개월간 빙코어스·한양네비움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말에 뒤늦게 관련 심사를 신청했고 '직무 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이날 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재심사를 요청해 '직무 관련성 없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회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재심사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관련 세미나에 진 후보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는 걸 언급, "이런 데도 참석한 분이 실수라고

대해, "여성에게는 남성이, 남성에게는 여성이 중요하다는 걸 더 실감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유 기록교체를 중심으로 한 반(反) 동성애 주장에 대해서는 "하 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포용 입장이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14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저도 너무나 많은 차별 속에서 스스로 무장하고 발전시켜야 했다"며 "의외인으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인종적, 인권적 관점에서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탄압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국민 속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다"며 "결국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